

강동원의 도전... 신작 '가려진 시간'

"감독이 신인이고 아니고는 신경 쓰지 않아... 감독님 만나고 확신이 섰을 때 결단 내려"

배우 강동원(35)의 최근 행보는 '놀랍다'라는 표현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지난 2014년 '군도:민란의 시대'(477만명)를 시작으로 '부근두근 내 인생'(2014·162만명) '검은 사제들'(2015·544만명) '검사의전'(2016·970만명) 등 3년 동안 네편을 내렸고 매 작품 완전히 다른 연기를 선보였으며, 이 모든 영화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게다가 이 중 두 편은 신인감독 영화였다.

강동원은 이번에도 또 놀라운 발걸음을 내디딘다. 전과 마찬가지로 전에 연기한 적 없는 캐릭터이고 또 신인감독이다. 이번에도 강동원은 해낼 수 있을까.

강동원이 선택한 작품은 지난 2013년 임투기로 관객과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데뷔한 엄태화 감독의 상업영화 데뷔작 '가려진 시간'이다.

영화는 소녀 '수린'(신은수)과 소년 '성민'(강동원·이효제)의 이야기다.

자신 민의 세계에 빠져 사는 수린은 성민을 알게 되고 친구가 된 두 아이는 어느 날 공사장 발파 현장을 구경하러 갔다가 성민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며칠이 지난 뒤 한 성인 남성이 자신이 성민이라며 수린을 찾아온다.

강동원이 맡은 역할은 소년 성민이다. 성민은 수린 외에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 상처받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는 인물이다.

강동원은 "중요한 건 시나리오다. 감독이 신인이고 아니고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시나리오가 재밌었고, 감독님을 만나고 확신이 섰을 때 망설이지 않고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동원은 "같은 연기를 반복할



엄태화 감독의 상업영화 데뷔작 '가려진 시간' 강동원이 맡은 역할은 소년 성민이다. 성민은 수린 외에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 상처받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는 인물이다.

이유가 있다.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다. 어렵고 힘들 수는 있지만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 계속 도전해보고 싶다"고 덧붙혔다.

강동원의 도전은 상대 배우와의 호흡에도 있었다. 그는 전작들에서 하정우·송혜교 같은 또래 배우, 혹은 김윤성·황정민과 같은 선배 배우들과 함께했다. 이번에는 스무 살이 어린 신인 배우 신은수(14)와 연기해야 했다.

"(신은수와) 또래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특별히 힘들지 않았다"고 농담을 던진 그는 "은수양이 프로 연기자로서 준비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연기가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강동원은 이어 "연기할 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려진 시간' 연출을 맡은 엄태화 감독은 이번 작품에 대해, "어른이 되면서 그 사이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

까, 그런 감정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싶었다고 했다. 엄 감독은 이렇게 믿음과 순수함을 말했다.

강동원은 엄 감독의 순수에 대해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내가 배운 옳음과 정의를 기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순수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껏 그렇게 살려고 해왔다"고 했다.

/뉴스



고창군청 여자유도 임정수 전국체육대회 동메달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임정수 선수가 선전하고 있다.

임정수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충남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중 서산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유도대회에서 open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임정수(+78kg) 선수는 고창군 대표적 선수로 올해 전국 실업유도 최강전에서 금메달을, '제9회 청풍기 유도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한바 있으며 매 대회마다 좋은 성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009년 직강운동경기부 유도 실업팀을 창단해 현재 흥기문 경기지도자와 선수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실업유도 최강전 개인전 +78kg급 1위, 단체전 2위에 입상했고, 제9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 개인전 +78kg급 2위, -63kg -70kg급3위, 단체전3위에 입상했다.

고창군 유도부 선수들은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끝나고 10월 말에 열리는 '2016 회장기전국유도대회(2017년도 1차 국가대표 선발전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LPGA투어 시즌 3승 장하나, 세계랭킹 '톱10' 복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3승을 거둔 장하나(24·BC카드)가 세계랭킹 '톱10'에 복귀했다.

10일(한국시간) 발표된 세계 여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장 하나는 지난주 12위에서 4계단 상승한 8위에 올랐다.

장 하나는 9일 대만 타이베이 미라마 골프 컨트리클럽에서 끝난 '푸른 LPGA 타이완 챔피언십'에서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3승째를 거뒀다.

이번 우승으로 평균 5.99포인트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세계랭킹 1위는 리더야 고(뉴질랜드)가 평균 13.54포인트를 기록하며 51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지킨 가운데 7위까지는 변동이 없다. 에리아 푸타누간(태국), 진인지(22·하이트진로), 브룩 헨더슨(캐나다), 렉시 톰슨(미국), 김세영(23·미래에셋자산운용),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2위부터 7위를 유지했다.

박성현(23·벵스), 양희영(27·PNS창호)이 한 계단씩 밀려 9위와 10위가 됐다.

/김민근기자

윤여정 주연 영화 '죽여주는 여자' 5만 관객 넘어

배우 윤여정이 주연한 영화 '죽여주는 여자'(감독 이재용)가 개봉 5주 만에 5만 관객을 넘어섰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죽여주는 여자'는 전날 300개관에서 781회 상영, 7000명이 봐 누적관객 5만명을 넘겼다(5만1068명). 이날 매출액은 480만원(누적 매출액 3억9100만원). 매출에 점유율은 3.0%였다.

영화는 윤여정과 이재용 감독이 '뽕담화:감독이 미쳤어요'(2013) '여배우들'(2009)에 이어 세 번째 호흡을 맞추는 작품이다. 이 감독은 '박카스 할머니'를 소재로 소외된 노인들의 삶과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윤여정이 박카스 할머니 '소영'을 연기했고, 이밖에 전무송·윤계상·안아주·박규제 등이 출연했다.

/뉴스

전국체육대회 전북선수단, 충북과 10위놓고 치열한 접전

9위 인천과 종합점수 600점 이상 차이... 목표 했던 9위 달성 사실상 힘들어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종합 9위의 목표를 내세우고 야심차게 출정한 전북선수단이 10위와 12위를 오르락 내리락하며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선수단은 11일 14시 기준 금메달 32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54개를 획득하며 9위 인천과 10위 충북에 이어 11위에 위치하고 있다.

대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위 인천과는 이미 종합점수가

600점 이상 차이나거나 목표로 했던 9위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하지만 10위 충북과는 종합점수 100점차 이내에서 치열하게 었치락뒤치락 경쟁하고 있어 선수단의 마지막 집중력에 따라 10위 수성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작년대회서 종합순위 6위에 그쳤으나 올해 1위로 올라선 공도의 약진과 전년에 비해 10위에서 7계단이나 상

승한 댄스스포츠 등이 큰 힘을 보태며 10위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도의 임강훈(전북체고)과 카누의 이순재(도체육회), 궁도 이형춘(도체육회), 체조 이상욱(전북도청) 등 4선수는 각 종목에서 2관왕에 올랐다.

다행히 아직 농구, 배구, 스쿼시, 야구, 핸드볼 등 구기종목들이 8강 이상에 진출해 금메달을 목표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탁구의 이일영과

와 군산대 하기의 김제고 역시 준결승에 진출해 있어 대회 전복에 큰 힘을 보낼 전망이다.

한편, 13일까지 충남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홉탑인 충청남도도 이미 2위 부산과 종합점수가 5천점 이상 차이를 내 전통의 강호 부산과 다들던 챔피언 경기도를 누르고 대회 우승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